
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[세션3] 미래세대 탄소중립리더십 : 우리가 만드는 내일 - 운영결과 보고서 -

1 개요

- 일시 : 2025. 9. 2.(화) 17:00~18:00(60분)
- 장소 :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3층 1홀
- 세마나주제 : 미래세대 탄소중립 리더십에 대한 소통과 공감
- 주최/주관 : 충남연구원, 충청남도
- 컨퍼런스 함께하신 분들
 - 진행자 : 이상신 센터장(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)
 - 청소년 : 충남도립대(김태훈), 홍주고(이동찬, 류호석), 전민고(문준상), 온양여중(임가현)
 - 전문가 : 백경렬 교수(충남도립대), 유영석 교장(홍주중학교), 이경호 사무처장(대전환경운동연합)
 - 청중 : 지역 학교 환경동아리, 컨퍼런스 참석 등

2 주요 결과

- 세대 간 대화 :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대응 시각 차이를 공유
- 불평등 문제 : 탄소중립 과정에서 계층·세대·지역 간 불균형 지적
- 희망과 실천 : 청소년이 불안 속에서도 생활 실천과 연대로 희망 모색
- 기회 전환 : 기후위기를 기술혁신과 산업 전환의 기회로 강조
- 기후세대 메시지 확정
 - 탄소중립, 내일을 위한 오늘의 약속
 - 말만 하지말고, 실천하는 우리
 - 작은실천, 큰변화, 우리의 선택

○ 진행과정

① 사전 리허설



② 현장 준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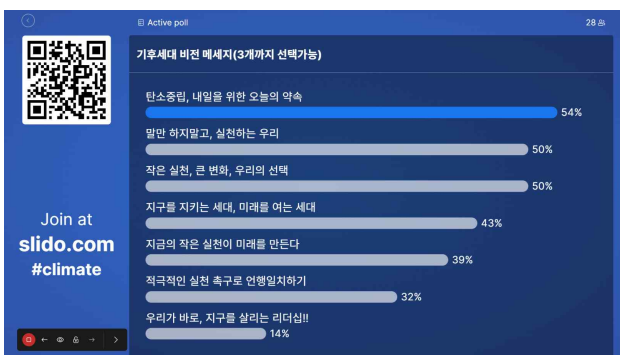
③ 참석자 인사



④ 안전별 토론



⑤ 기후세대 메시지 선정



⑥ 기념사진 촬영



○ 오프닝/인사

- 행사 취지,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임을 설명
- 참여자 소개, 청소년, 청년, 전문가, 교육계 인사 소개 및 환영 인사
- 기대 메시지, “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” 발언

○ 세대 간 시각 차이 공유

- 30년 전부터 제기된 환경문제 경고와 오늘날 현실의 차이 언급
- 기성세대는 당시 ‘고민의 과제’, 청소년은 ‘생존 문제’로 인식
- 학생들은 기성세대보다 환경 감수성이 높음을 강조

○ 탄소중립과 불평등 문제 제기

- 반려동물·축산업 배출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논의
-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간적 불평등 사례 제시
- 세대 간 책임 분배의 불공정성 지적(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담 차이)

○ 청소년의 환경 인식과 실천

-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
-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며, 경제개발과 균형보다 생존과 미래를 우선시
- 친구들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행동 계획 공유

○ 불안과 희망의 교차

- 청소년들이 기후 불안을 경험하며 절망감을 토로
- 하지만 태양광 발전,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지역 사례를 통해 희망 발견
- “개인의 작은 실천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”는 믿음 강조

○ 연대와 행동 촉구

- 기후 비상 행동 집회(9월 27일 서울) 등 집단적 행동 안내
- 육식 줄이기·채식 등 생활 습관 전환의 효과 강조
-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협력과 지원을 강하게 요청

○ 기성세대의 역할 정리

- 기술·연구 성과는 있으나 실천이 부족함을 지적
- 미래세대에게 권한을 넘기고,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필요
- 간섭을 줄이고 청년 의사결정 참여 보장 강조

○ 경제적 관점과 기후 비용 논의

-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비용 문제 제시
- 기후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함을 경고
- 재생에너지·감축 시설 투자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강조

○ 책임 분담과 제도 개선

- 오염자 부담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
- 기업과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강화 필요
- 실질적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강조

○ 미래세대 목소리 확산

- ‘에코 보이스 프로젝트’ 등 학생 주도 활동 소개
- 기후세대의 메시지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 제시

○ 참여형 토론과 문화적 연결

- 청소년 및 청중의 의견을 QR 설문 등으로 수렴
- K-POP 과거·현재 노래 메시지를 비교하여 환경 담론 연결

○ 희망과 혁신의 전환

- 희망과 절망 중 선택을 묻는 질문에서 “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”는 메시지 부각
- 기후 위기를 혁신 기회로 전환, 4차 산업혁명, 신재생에너지, 순환 경제, 녹색금융 등

○ 미래세대의 역할 강조

- “환경 혁명은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”이라는 메시지 공유
- 국제협력 활동참여 독려, 청소년이 기성세대 한계를 이어가는 주체로 인식

○ 마무리 및 약속

- 토론 및 투표 결과를 정리하여 충청남도에 전달 예정
- 이번 대화를 미래 변화의 출발점으로 선언하며 종료